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22-9179 홈페이지 www.gilbu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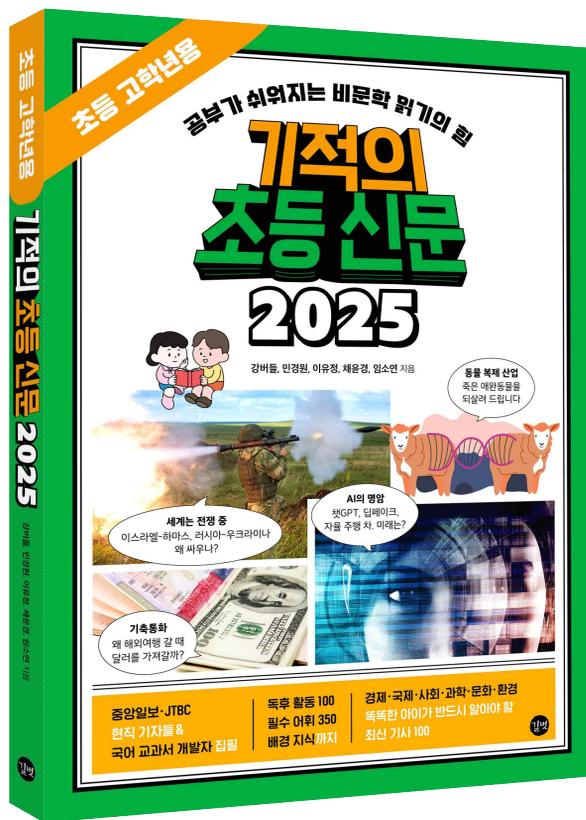
담당자 자녀교육서팀 황지영 02-330-9829 jyhwang@gilbut.co.kr

공부가 쉬워지는 비문학 읽기의 힘

기적의 초등 신문

2025

초등 고학년용



지은이 | 강버들, 민경원, 이유정, 채윤경, 임소연

발행일 | 2024.10.25. 분야 | 어린이 판형 | 185x250 형태 | 무선 페이지 | 244쪽 정가 | 19,800원

기적의 초등 신문 2025 (초등 고학년용) ISBN 979-11-407-1139-0 (73300)

■ 책 소개

“좋아하는 그림책, 만화책만 읽어도 될까요?”

중앙일보·JTBC 현직 기자와 국어 교과서·문제집 개발자가

‘내 아이를 위해’ 쓴 최신 기사 100

‘아이가 책을 읽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분야만 파고드는데 괜찮을까요?’ ‘그림책이나 만화책만 읽는데 다른 글도 읽으면 좋겠어요.’ ‘아직 국어 영역 문제집을 풀기는 이룬데, 비문학 글은 골라 읽고 싶어요.’ 아이들 읽기 능력이 화두인 시대, 《기적의 초등 신문 2025》는 독서 편식하는 초등학생, 어려운 글 읽기를 힘들어하는 초등학생을 다양한 주제의 비문학 읽기로 안내하는 책이다. 국제부·정치부·사회부·문화부·경제부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현직 기자들과 국어 교과서·문제집을 만들어온 개발자가 함께 쓴 책으로, 요즘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사회 이슈 100개와 학습으로 연계되는 독후 활동까지 담았다.

저자들은 주요언론사인 중앙일보·JTBC에서 활동 중인 기자, 국어 교과서 개발자인 한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내 아이와 함께 읽고 싶은 유익한 뉴스’를 선정해 별도 집필했다. 기사는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으로 나누어 아이들이 흥미를 보일 만한 주제, 교과 과정과 연계되는 주제, 세상 읽는 눈을 키워주는 지식을 담은 주제 등 100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 초등학생 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했다.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읽어낼 수 있는 분량으로 집필했다.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어려운 어휘를 3~4개 섞어 쓰고 어휘 풀이를 별도 수록했으며,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독후 활동도 수록했다. 초등학생의 읽기 수준과 어휘력은 해마다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해당 학령기 아이들의 읽기 수준에 맞춰 어휘와 정보량을 다르게 한 것도 《기적의 초등 신문 2025》의 특징이다. 아이들이 글 하나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각과 지식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기사와 연계된 배경지식도 수록했다. 하루 1장 하루 10분으로 비문학 읽기 습관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사 리뷰

요즘 아이들 어휘력·문해력 예전보다 떨어진 게 사실일까요?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 지문,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비문학 읽기 근력, 지금부터 키워주세요

2024년 고3 모의고사 영어 영역 지문에 ‘Shrinkfl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제조 물가 상승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판매 방식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이 개념을 이미 알고 있던 아이와 전혀 모르던 아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2024년 수능 모의고사에서 다룬 비문학 지문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OTT,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이슈들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에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이슈는 새로운 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수능에서는 빠지지 않고 다루는 주제다. 또한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도 예전과 다르다. 아이들의 어

휘력과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화두지만 아이들이 읽고 소화해야 할 글의 난이도가 월등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5》은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되는 어려운 글을 읽어내야 할 요즘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기 좋은 비문학 도서다. 아이를 둘러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주요 이슈를 다뤄서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한편 주요언론사인 중앙일보와 JTBC에서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며 버린 간결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몸에 밴 기자 넷과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 개발자로서 교육 현장 선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온 개발자가 힘을 합쳤다. 초등학생 수준을 고려한 날카로운 비문학 글이다. 앞으로 어려운 글을 읽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읽던 것보다 낫설고 수준 높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기사당 3~4개씩 섞었다. 아이는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글을 읽으며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 독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아이의 꿈은 자신이 아는 세계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

똑똑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최신 이슈를 다뤘습니다

양질의 글도 중요하지만 흥미가 없으면 끝까지 읽기 힘들 것이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5》은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보일 만한 섹션이자 교과 과정과도 연계되는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 6개 섹션으로 나누었다. 책에 실린 각각의 기사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하루 1개씩 읽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다 보면 점차 관련 분야의 지식이 확장되도록 주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왜 해외여행 갈 때 달러를 가져갈까?(기축통화)’ ‘왜 일본 여행 부쩍 많이 갔을까?(기준금리와 환율)’ ‘비트코인도 화폐가 될 수 있을까?(화폐의 진화)’가 그 예다. 한편 ‘뽀말라는 해로워요’ ‘마라탕후루, 매일 먹으면 안 될까요?’처럼 요즘 아이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문을 담은 이슈, ‘한강, 노벨상 수상’ ‘e스포츠 정식 종목 돼’ 등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슈 등 흥미를 붙잡았다.

아이의 꿈은 자신이 아는 세계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아예 모르는 영역에는 관심도 생길 수 없고, 조금이라도 알아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기적의 초등 신문 2025》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알고,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현재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에 손을 내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하는 역할,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방향, 과학의 현주소 등을 안다면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고, 꿈을 키우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하루 10분 하루 1장으로 비문학 독해력을 키워줄 뿐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워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책의 특별한 점

- V 현직 기자들이 고르고 쓴 기사로, 정확성·균형감·간결함을 갖춘 글입니다.
- V 국어 교과서 개발자가 초등 고학년 교과 수준에 맞춰 다듬었습니다.
- V 경제·국제·사회·과학·문화·환경 다양한 분야의 글로 어휘력과 문해력을 길러줍니다.
- V 각 분야 필수 어휘와 필수 개념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글도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V 글마다 배경 지식을 수록했습니다.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지식과 흥미를 확장시킵니다.

V 글마다 독후 활동을 수록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자 소개

강버들 JTBC 기자

JTBC 기자. 사람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정보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기자가 되었는데도 인간사가 좀처럼 이해가 안 돼 십수 년째 질문하고 있다. 우주와 과학 이야기를 동경한다. 모르고 어렵고 밥벌이와 무관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품고 살길 바라며,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아이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책을 함께 본다.

민경원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 기자.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 신문방송학, 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했다. 드넓은 세상이 궁금해 곳곳을 쏘다녔다. 덕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묻고 듣고 쓰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됐다. 사람과 세상을 잇는 숨은 이야기를 발굴할 때 희열을 느낀다. 문화부에서 오래 일하며 음악과 영상에 파묻혀 살았다. 현재는 페어런츠팀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양육자를 위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유정 중앙일보 기자

중앙일보 기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기자가 되어 사회부 법조팀, 탐사팀, 국제부를 거쳤다. 현재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늘 믿고 있다. 바쁜 아내이자 엄마, 사랑받는 둘째 딸, 성실한 직장인. 영화관에서 팝콘과 제로콜라를 들고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

채윤경 JTBC 기자

JTBC 기자.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기자가 되어서는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고 있다. 국밥을 제일 좋아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다. '모르면 읽고, 알아도 읽자. 그럼 길이 보인다'고 믿는다.

임소연

국어 교과서·문제집 개발자.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줄곧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 어린이 책 만드는 일을 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만들고자 한다.

■ 차례

시작하며_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나요?

지식이 쑥쑥 자라는 5단계 활용법

Section 1. 경제

[경제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 경제 001 몇 개 집어 먹으면 끝, 과자 양이 줄었어!
- 경제 002 ‘금사과’, 바로 수입할 수 없는 이유는?
- 경제 003 싸도 너무 싸다, 중국 온라인 쇼핑물
- 경제 004 쿠팡이 쏘아 올린 당일 배송 전쟁
- 경제 005 아르헨티나의 초인플레이션!
- 경제 006 미국 달러, 왜 전 세계에서 통하나
- 경제 007 슈퍼 앤저 시대 저무나
- 경제 008 비트코인의 등장… 화폐 진화 어디까지?
- 경제 009 왜 릴스는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까?
- 경제 010 유튜버 수입, 얼마일까?
- 경제 011 망 사용료 둘러싼 갈등
- 경제 012 바다의 반도체, 김
- 경제 013 아이폰 대신 애플 주식을 산다고?
- 경제 014 다시 사무실로… 재택근무 감소
- 경제 015 반려동물 산업이 뜨고 있다!
- 경제 016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량, 대책은?

Section 2. 국제

[국제 기사 읽기 전 알아두기 - 나라]

- 국제 001 푸바오는 왜 중국으로 돌아갔을까?
- 국제 002 세계 최고 부자 1, 2, 3위는?
- 국제 003 전 세계 1위 인구 대국은?
- 국제 004 중국 남성 3000만 명, 결혼할 여성 없다
- 국제 005 아프리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 국제 006 ‘관광세’ 걷는 도시들, 제주에도 도입?
- 국제 007 ‘쓸래’ ‘벗을래’ 전 세계 히잡 논쟁
- 국제 008 한국과 쿠바의 수교 ‘007 작전’
- 국제 009 세계의 권위주의 통치자들
- 국제 010 북한의 3대 세습, 그 다음은?
- 국제 011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와 무슨 연관이?
- 국제 012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이 세계 대표?
- 국제 013 ‘여행 금지’ 국가, 허가 없이 가면?
- 국제 014 장기화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국제 015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왜?
- 국제 016 ‘독도의 날’ 기념일 정해져
- 국제 017 챗GPT의 등장, 기회일까 위기일까

Section 3. 사회

[사회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 사회 001 나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 사회 002 대통령도 월급을 받을까?
- 사회 003 한국은 대통령, 일본은 총리?
- 사회 004 교권 추락 원인,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
- 사회 005 초저출산과 초고령의 위기
- 사회 006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일까?
- 사회 007 서울에 있는 학교도 줄줄이 폐교
- 사회 008 “숙제가 많아요” 우울한 한국 어린이들
- 사회 009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
- 사회 010 키오스크, 편리함 속 불편함
- 사회 011 곰표 맥주도 곰이 없는데 버터 맥주만 잘못?
- 사회 012 ‘주 4일제’ 논의 본격화
- 사회 013 학교 폭력, 더 오래 기록해 둔다!
- 사회 014 도로 위 무법자 ‘킵라니’
- 사회 015 가짜 뉴스, 왜 위험할까?
- 사회 016 보안 앱 깔았는데 ‘좀비 폰’ 됐다!
- 사회 017 하늘에서 정체 모를 풍선이 떨어졌다!

Section 4. 과학

[과학 기사 읽을 때 필수 개념 15]

- 과학 001 외계인은 정말 존재할까?
- 과학 002 지구의 자전, 우리는 비행기보다 빠르다
- 과학 003 점점 늘고 있는 ADHD… 왜 생길까?
- 과학 004 공부 잘하는 뇌, 따로 있을까?
- 과학 005 ‘뽀말라’가 되고 싶다고?
- 과학 006 잠, 일찍 자는 게 좋을까?
- 과학 007 마라탕후루, 건강에는 어떨까?
- 과학 008 사람과 동물 서로에게 병을 옮긴다!
- 과학 009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식당
- 과학 010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 과학 011 피 묻은 다이아몬드보다 실험실 다이아몬드
- 과학 012 미래의 ‘미니 가축’ 꿈꾸는 곤충 식량!
- 과학 013 최초 쇠고기 배양육 판매
- 과학 014 반려견도 복제하는 시대
- 과학 015 카드 대신 안면 인식 결제로
- 과학 016 진짜 같은 가짜 ‘딤페이크’
- 과학 017 자율 주행 차, 전국을 누빈다
- 과학 018 달 탐사 경쟁, 2막 시작!

Section 5. 문화

[문화 기사 읽을 때 필수 상식 11]

- 문화 001 한강,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 문화 002 임윤찬, 어떻게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됐나?
- 문화 003 <오징어 게임> 열풍 어떻게 탄생했을까?
- 문화 004 이정재, '스타워즈' 주인공이 된 까닭은?
- 문화 005 빌보드는 왜 뉴진스, 스키즈를 초대했나?
- 문화 006 뉴진스 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문화 007 아이유는 왜 축구장에서 공연할까?
- 문화 008 거세지는 문화재 반환 논란
- 문화 009 미술품 위작 논란은 왜 반복될까
- 문화 010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 문화 011 이견희 컬렉션이 탄생한 이유
- 문화 012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논쟁?
- 문화 013 심판도 AI가 보는 시대
- 문화 014 게임도 스포츠! '롤드컵' 아시안게임까지
- 문화 015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도 될까?
- 문화 016 무교가 가장 많은 한국인

Section 6. 환경

[환경 기사 읽을 때 필수 어휘 15]

- 환경 001 평화의 상징에서 '쥐들기'로...
- 환경 002 별집 군집 붕괴 문제, 풀 수 있을까?
- 환경 003 북극곰은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 중
- 환경 004 해양 쓰레기, 건져 내도 끝이 없다
- 환경 005 일본, 바다에 오염수 흘려 보내
- 환경 006 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
- 환경 007 대기 오염 일으키는 불꽃놀이
- 환경 008 심각한 산불, 2배 이상 증가
- 환경 009 멸종 위기의 제주 돌고래들
- 환경 010 1년에 버려지는 휴대전화, 53억 대
- 환경 011 '그린워싱' 법으로 막는다
- 환경 012 기후 문제, 취약 계층 피해 더 심각해
- 환경 013 1.5도 기온 상승, 얼마나 위험할까
- 환경 014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한국서 열리다
- 환경 015 신재생 에너지란?
- 환경 016 업사이클링, 산업 전반으로 확산

답안